

진흥회 동정

전기 전문 기술인력 정보 DB화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조사하여 Data Base화 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전기산업계의 인력수급과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한국전기연구소는 통상산업부에서 신경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보 전산망 사업에 따라 「전기분야 전문 기술인력 정보 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 지원하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전정보네트웍(주)가 사업시행 기관으로 한국전기연구소가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위탁기관으로 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추진되는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DB화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산업체 600명, 연구소 200명, 전력회사 100명, 대학교수 100명 등 약 1,000명을 조사하게 되며 향후 우리나라 전기분야(중전기, 전력 등)에 종사하는 전체

기술인력(전문기술자, 현장기술자, 기술기획전문가 등)을 모두 조사하여 DB화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사업과 관련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금년 1차적으로 전기산업 관련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및 현장기술자 약 600명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된 정보는 정부 및 산·학·연에서의 기술자문 및 연구평가위원 선정등과 기술개발 과제 수행시 참여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게 되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활용 가능한 정보만을 인터넷 등 정보네트웍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본인의 업적과 기술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편, 최근 제조업의 기술집약화 추세에 따라 고급 연구·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산업계의 기능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문 기술인력 정보 DB화」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과 활용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日,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5일 KOTRA 12층 대회의실에서

중전기 업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전력

기자재 시장에 대한 국내 중전기 업체들의 진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동경전력의 유키오 기무라 자재부 부부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일본 전력업계의 해외조달 규모 및 향후 시장전망 등 전력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중전기 구매현황과 제품 품질에 대한 평가, 구매희망 품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앞으로 국내 중전기 업체의 대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내 중전기 업체의 대일 진출전략 및 마케팅 활동시 유의사항과 동경전력의 국별 조달현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

었다.

한편, 일본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력요금을 2001년까지 20% 인하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철탑,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도입선을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경전력은 지난해 250억엔 상당의 기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국으로부터 190억엔, 우리나라에서 13억엔 상당의 전력기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에서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별도 발간, 회원사에 배포하여 대일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